

‘XP가 왜?’와 ‘왜 XP가?’ 구문에 대한 소고

권선영*

[초 록]

본고에서는 ‘XP가 왜?’와 ‘왜 XP가?’ 형식의 조각문(fragmental utterance)을 대상으로, 이를 구성하는 의문부사 ‘왜’, 주격표지 ‘-이/가’에 대한 기존 논의를 검토하여 조각문에 대해 이들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살핀다. 조각문을 통해 비교하여 ‘왜’가 기존 논의에서 다루어 온 바와 같이 문장부사인지 의심해 볼 수 있었으며, ‘-이/가’ 명사구가 어순에 관계없이 초점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XP가 왜?’와 ‘왜 XP가?’와 같은 다중 조각문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다중 생략에 의한 것임을 밝히고, ‘XP가 왜?’나 ‘왜 XP가?’가 동일한 문장으로부터 어순 변화를 통해 만들어진 문장이 아니라 서로 다른 문장으로부터 생략을 겪어 만들어진 것임을 확인하였다. 조각문이 문법 현상 검토에 유용하다는 점을 보였다는 데에서 본 논의의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주제어: 조각문, 다중 조각문, 의문부사, 주격표지, 다중 생략
Fragmental Utterance, Multiple Fragmentary Sentence, Question Adverb,
Subject Label, Multiple Ellipsis

1. 서론

본고에서는 의문사 ‘왜’가 이루는 구문 중에서 ‘XP가 왜’와 ‘왜 XP가’에 주목한다.

- (1) ㄱ. 영희가 어제 도서관에서 철수를 만났다.
- ㄴ. 영희가 왜?
- ㄴ'. 왜 영희가?

이는 선행 문장에서 주어진 정보 중 ‘어제’, ‘도서관’, ‘철수’를 생략하고 ‘영희’에 집중하여, 어제 도서관에서 철수를 만난 주체가 다른 사람이 아닌 영희인 까닭을 묻는 의문문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주로 구어체의 여러 담화 상황에서, 앞서 언급된 내용을 반복하지 않고 새로운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부분만을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언어의 방식을 조각문(fragmental utterance)이라 한다.¹⁾ 이러한 조각문 (1ㄴ)과 (1ㄴ')의 생략된 모든 성분을 선행문과 동일하게 복원할 경우 각각 다음과 같은 문장을 예상해 볼 수 있다.

- (2) ㄴ. 영희가 왜 어제 도서관에서 철수를 만났나?
- ㄴ'. 왜 영희가 어제 도서관에서 철수를 만났나?

그러나 이와 같이 복원한 (2ㄴ), (2ㄴ')가 (1ㄴ), (1ㄴ')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의문부사 ‘왜’를 문장부사로 볼 경우 (2ㄴ)의 문장은 ‘왜’가 어두 위치가 아닌 ‘영희가’의 뒤로 이동한 것인데, 이 경우 질문의 요지²⁾는 ‘왜’보다 후행하는 사건의 요소들, 즉 사건이

1) 안희돈(2012), 『조각문 연구』, 한국문화사, pp. 11-12.

2) 다른 요소보다 강조하여 질문하는 요소를 표현하기 위하여 본고에서 편의상 선택한 단어이다.

어제 도서관에서 발생한 까닭, 상대방이 철수인 까닭을 묻는 의미로 해석된다. (2ㄴ)처럼 ‘왜’가 어두에 위치하는 경우 역시 (1ㄴ)과 의미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어두 위치는 문장부사의 기본 위치이므로, 이 때 질문의 요지가 (1ㄴ)처럼 잔존 성분인 ‘영희’에 국한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보다 사건 전체가 왜 발생했는지 묻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조각문을 통해 드러나는 이러한 요소들의 특징을 살피고, 기존의 부사 관련 논의, 의문사 관련 논의, 초점 관련 논의와 조각문 관련 논의들을 검토하며 조각문이라는 특수한 형태의 문장이 문법 현상 검토에 유의미함을 보이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³⁾

2. 조각문의 범주와 생성에 대한 검토

구성 요소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 앞서 ‘XP가 왜’와 ‘왜 XP가’ 구성을 조각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또한 조각문이라면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형성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먼저 살펴본다.

조각문과 유사한 개념으로는 소형문(Minor Sentence)이 있다. 다음은 성광수(1972)⁴⁾에서 제시한 다양한 소형문의 사례 중 일부를 가져온 것이다.

- (3) ㄱ. 철수!
 ㄴ. 불이야!

3) 조각문으로 검토할 수 있는 문법 현상의 대상은 다른 의문사, ‘을/를’과 같은 다른 격표지, 다른 조사구의 정보 지위 등 다양하게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지면의 한계와 기존 ‘왜 XP’ 조각문 관련 논의에 대한 관심이 이유가 되어 검토 대상이 특정 문형에 한정되었다.

4) 성광수(1972), 「국어 소형문에 대한 검토」, 『한글』 150, pp. 116-123.

㉔. 안녕?

소형문이란 주·술 관계를 구조상으로 갖추지 못해 비교적 불완전 하나 구어에서 완전한 의사 전달을 수행하는 문장을 말한다.⁵⁾ 소형문은 모든 문장 성분을 갖추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조각문과 유사하나 기존의 논의에서는 생성 과정을 달리 본다. 생략문은 대형문으로부터 출발하여 문맥상 이미 등장한 요소를 생략하는 과정을 거쳐 생겨난 현상이므로 이를 통사 층위에서 복원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소형문은 생략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므로 나타나지 않은 성분을 도로 복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⁶⁾

이정훈(2017)⁷⁾에서는 이러한 소형문의 특성이 조각문과도 대비된다고 보고, 자유로운 맥락에서 생략을 통해 형성되던 조각문이 고정화, 관습화되어 특정 맥락과 결부되거나 이러한 현상이 더 심화되어 다른 맥락과의 결부를 저지할 경우 이것이 소형문으로 발달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XP가 왜’와 ‘왜 XP가’는 선택되는 맥락이 대체로 자유로우며, 선행 발화의 영향을 크게 받으므로 소형문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생략과 비실현의 차이를 회복 가능성으로 보는 입장을 수용할 때 나타나지 않은 요소들을 상황이나 선행 발화를 통해 손쉽게

5) 성광수(1972), p. 117.

6) 윤평현(2003), 「국어 소형문의 발화 행위에 대한 고찰」, 『한글』 259, pp. 199-232; 이유미·황병순(2017), 「국어 소형문의 특성과 유형」, 『언어과학연구』 80, pp. 243-267 참고. 이들 논의에서는 ‘생략문’에 대해서만 언급하였으며, 엄밀히 조각문과 생략문이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는 개념인지는 불분명하다. 이정훈(2017), 「한국어 조각문의 형성 과정: (이동과) 생략」, 『언어와 정보 사회』 31, pp. 425-429 참고. 이정훈(2017)에서 성광수(1972)와 윤평현(2003)의 소형문 예시를 수용하여 조각문과 소형문을 구분, 조각문에는 생략이 적용되며 자유로운 맥락을 토대로 한다는 특징이 있음을 밝혔을 뿐이다.

7) 이정훈(2017), pp. 425-429.

복원할 수 있다.

- (4)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친구와 마주친 상황) 네가 왜? / 왜 네가?
 (5) ㄱ. 내가 보기에는 철수와 영희 중 영희가 이 일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해.
 ㄴ. 왜 영희가? / 영희가 왜?
 ㄴ'. 왜 영희가 이 일에 더 적합하지? / 영희가 왜 이 일에 더 적합하지?
 ㄴ''. 내가 보기에는 철수와 영희 중 왜 영희가 이 일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지? / 내가 보기에는 철수와 영희 중 영희가 왜 이 일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지?

위 (4)에서 선행 발화가 주어지지 않더라도 상황 맥락에 따라 ‘네가 왜 이곳에 왔어?’ 또는 ‘왜 네가 여기에 있어?’와 같이 생략된 성분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5)와 같이 선행 발화에서 내포절 안에 언급된 ‘영희’에 대하여 질문하는 경우, (5ㄴ')과 같이 내포절 안의 성분만으로 복원하거나 (5ㄴ'')과 같이 선행 발화의 모든 성분을 복원하는 것 어느 쪽이라도 어색함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토대로 볼 때 ‘XP가 왜’와 ‘왜 XP가’는 생략을 통해 생성되는 조각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떠한 요소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생략되었는지 살펴보자. 조각문의 형성에 대해서는 기존에 자세히 논하고 분류한 연구가 있다.⁸⁾

이정훈(2017)은 생략을 통한 조각문의 형성 과정으로 다음의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8) 이정훈(2017); 이정훈(2018), 「조각문의 형성 방식과 다중 조각문」, 『국어학』 85.

- (6) ㉠ 영이가 누구에게 선물을 주었니?
㉡ 철수에게.
- (7) ㉢. 철수에게₂ 영이가 t₂ 선물을 주었다.
㉣. 영이가 t₂ 선물을 주었다, 철수에게₂.
㉤. 영이가 철수에게 선물을 주었다.
㉥. 철수에게, 영이가 철수에게 선물을 주었다.⁹⁾

(6)과 (7)은 기존 논의의 예문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33㉢~㉥)은 각각 ‘전치와 생략’, ‘후치와 생략’, ‘이동 없는 다중 생략’, ‘제시어 구문과 생략’이라는 조각문 형성의 네 가지 방법으로 제시된 것이다. 이를 하나씩 검토하여 ‘XP가 왜’ 또는 ‘왜 XP가’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생성된 조각문인지 보도록 한다.

첫째로 (7㉢)처럼 조각문 생성 과정을 전치와 생략으로 보는 경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부정극성 표현 ‘아무도’와 의문 표현 ‘어떤 책을’이 공기하는 예를 통해 그 필요성을 설명하였다.¹⁰⁾

- (8) ㉦ 아무도 그 사람을 걱정하지 않더라.
㉧ 누구를?
- (9) ㉨. ?"아무도 누구를 걱정하지 않았니?
㉩. 누구를 아무도 t 걱정하지 않았니?

위 (8)의 ㉦와 ㉧ 대화가 수용 가능성을 통해 (9)와 같은 조각 성분의 전치와 뒤 성분의 생략이 경험적 증거를 확보하게 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를 ‘XP가 왜’와 ‘왜 XP가’에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

9) 이정훈(2017), p. 446.

10) 이정훈(2017), pp. 429-431.

- (10) ㄱ. *[영희가] 왜 t 어제 도서관에서 철수를 만났나?
 ㄴ. ?왜1 영희가2 t₁ t₂ 어제 도서관에서 철수를 만났나?
 ㄷ. ?[왜 영희가] t 어제 도서관에서 철수를 만났나?

조각성분이 전치 혹은 후치된 후 생략될 때 생략되는 부분은 t를 포함하여 구성에 문제가 없어 성분성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면 (10ㄱ)와 같은 이동과 생략은 성립하기 어려운 것이다. (10ㄴ, ㄷ)과 같이 ‘XP가’와 ‘왜’가 각각 전치되었거나 하나의 단위를 이루었다고 보기에 도이론적 근거가 부족하다.

둘째로 (7ㄴ)과 같이 후치와 생략으로 보는 경우이다. 역시 이정훈(2017)¹¹⁾의 논의를 빌면, 다음과 같은 문장을 통해 후치와 생략으로 조각문이 형성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 (11) ㉠ 그가 어떤 길로 왔다고?
 ㉡ 철수가 알려준.
 (12) ㄱ. *철수가 알려준 그가 t 길로 왔대.
 ㄴ. 그가 t 길로 왔대, 철수가 알려준.

(11)의 문답 역시 담화 상황에서 수용할 수 있으나 (12ㄱ)과 같은 전치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관형 성분은 전치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12ㄴ)과 같이 후치 또는 후보층은 허용하므로 (12ㄴ)의 과정을 거쳐 (11)의 조각문이 생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XP가 왜’와 ‘왜 XP가’는 후치될 경우 직관적으로 거의 수용하기 어렵다.

- (13) ㄱ. *t 어제 도서관에서 철수를 만났나, [영희가 왜]?
 ㄴ. *t 어제 도서관에서 철수를 만났나, [왜 영희가]?

11) 이정훈(2017), pp. 435-437.

전치와 생략, 또는 후치와 생략의 경우 전치되거나 후치되어 형성된 문장이 우선 수용 가능한 것이어야 하는데 (13)의 경우는 하나의 문장이 아니라 두 개의 의문문이 연속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를 볼 때 ‘XP가 왜’, ‘왜 XP가’ 조각문은 전치 또는 후치와 생략을 거쳐 만들어진 조각문이라 보기 어렵다 할 수 있다.

셋째로 제시어 구문 생성 후 생략으로 보는 경우이다. 제시어 구문은 (7ㄷ)과 같이 특정 성분이 문장 경계에 중복되어 나타나는 문장으로, 이러한 해석이 필요한 이유 역시 이정훈(2017)¹²⁾에서 자세히 설명하였다.

- (14) ㄱ. 금촌역, **철수는 금촌역에서만 영이를 만났다.**
 ㄷ. *금촌역만, **철수는 금촌역에서만 영이를 만났다.**¹³⁾

(14ㄱ)과 같은 예를 통해 어휘격 조사를 동반하지 않는 조각문의 경우를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생략되기 전 문장에서는 조사가 실현되지 않으면 어색한 경우가 있으나 조각문에서는 자주 생략이 일어난다. 이러한 현상은 전치 및 후치와 생략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다. 또한 (14ㄷ)과 같이 보조사 ‘-만’을 제외하고 ‘-에서’가 생략되는 경우가 불가능함을 보이면서 제시어 구문도 다른 현상과 마찬가지로 성분성을 토대로 작동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¹⁴⁾

이러한 제시어 구문 구성 후 생략 과정도 ‘XP가 왜’와 ‘왜 XP가’에 적용하기는 다소 모호하다.

- (15) ㄱ. [?]영희가 왜, **영희가 왜 어제 도서관에서 철수를 만났나?**

12) 이정훈(2017), pp. 442-445.

13) 이정훈(2017), p. 445.

14) 이정훈(2017), pp. 444-445.

ㄴ. ³왜 영희가, 왜 영희가 어제 도서관에서 철수를 만났나?

(15)에서 가정해 본 제시어 구문은 부적격하다고까지는 할 수 없으나 특별한 이유나 맥락이 주어지지 않으면 불필요하게 말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XP가’와 ‘왜’가 함께 제시될 만한 단위라고 판단하기도 불분명하다.

마지막으로 (7c)에서 보이는 다중 생략 방법을 보도록 한다. 위에서 논의한 바를 종합하면 소거법으로 ‘XP가 왜’와 ‘왜 XP가’ 조각문에는 다음과 같이 다중 생략 과정을 적용해 볼 수 있다.

(16) ㄱ. 영희가 왜 어제 도서관에서 철수를 만났나?

ㄴ. 왜 영희가 어제 도서관에서 철수를 만났나?

이정훈(2018)에서는 다중 생략(multiple ellipsis)이 조각성분의 이동이 없이 일어난다고 하여 이러한 조각문을 ‘제자리 조각문’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조각문 생성에 다중 생략이 가능한 근거로는 다음과 같이 내포절 안의 성분만 남아 조각문을 이루는 경우를 들었다.

(17) ㉠ 철수는 영이가 언제 민수를 만났다고 말했니?

㉡ 그저께.¹⁵⁾

(17)에서 ‘그저께’는 내포절 ‘영이가 그저께 민수를 만났다’ 안의 성분인데 시간이나 장소의 부가어는 절 경계 바깥으로 전치되거나 후치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예는 이동이 일어나지 않고 여러 번의 생략이 겹쳐 일어난 것으로 보았다.

위에서 고찰한 바를 통해 ‘XP가 왜?’와 ‘왜 XP가?’ 조각문도 다중

15) 이정훈(2018), p. 440.

생략을 통해 형성되었다고 본다면, 두 조각문이 동일한 어순의 문장으로부터 이동을 통해 두 가지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16ㄱ)과 (16ㄴ)의 문장으로부터 각각 형성되었으리라는 점이 보다 확실해진다. 다중 생략은 이동을 전제하지 않고, 각 성분들이 제자리에서 여러 차례의 생략을 겪은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조각문의 생성 과정에 대해서는 이후 논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으나, 본고에서는 위에서 살핀 내용을 토대로 ‘XP가 왜?’와 ‘왜 XP가?’가 각기 다른 두 문장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전제로 하고 다음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3. 조각문을 통한 ‘-이/가’와 초점 성분 검토

다음으로 ‘-이/가’ 성분 및 초점에 대하여 검토해 보자. 앞서 (1)에서 조각문 ‘영희가 왜?’와 ‘왜 영희가?’는 질문의 요지가 사건의 주체가 영희인 이유를 묻는 문장으로 의미상 차이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2장의 검토를 통해 두 조각문은 서로 다른 문장으로부터 다중 생략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리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어순 차이와 관계없이 두 조각문과 기저가 되는 문장의 정보값이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었으며 이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 알아본다.

‘-이/가’가 갖는 단순 격표지로서의 기능 외에 정보 층위에서 수행하는 기능에 대해서 기존에 여러 가지로 논의된 바 있다. ‘-은/는’ 조사구가 주제라는 설이 일반적으로 수용되어 왔으나, ‘-이/가’ 조사구도 주제로 쓰인다는 견해도 있다. 전영철(2009)¹⁶⁾에서는 기존의 ‘-이/가’

16) 전영철(2009), 「‘이/가’ 주제설에 대하여」, 『담화와 인지』 16(3).

주제설을 비판하고 주제와 초점에 대하여 다시 정의하였으며, ‘-이/가’를 주제 표지로 볼 수는 없다고 보았다. 반대로 ‘-이/가’를 초점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며 또한 이에 대한 비판도 있다. 최윤지(2019)¹⁷⁾에서는 기존의 ‘-이/가’가 주어와 초점인 경우 반드시 출현하여 초점을 나타낸다는 견해에 대하여 검토하고, ‘-이/가’ 명사구를 초점으로 보는 해석론적 관점과 초점임을 표현하기 위해 ‘-이/가’ 조사가 출현한다는 표현론적 관점 모두 언제나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초점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으며 확률적으로 상관관계가 높지만 ‘-이/가’와 초점 사이의 관계가 절대적이지는 않다는 것이다.

이제 조각문에서의 경우를 살펴보기 위해 앞서 예문을 다시 가져와 본다.

- (18) 가. 영희가 어제 도서관에서 철수를 만났다.
 나. 영희가 왜?
 나'. 왜 영희가?
 다. 영희가 왜 어제 도서관에서 철수를 만났나?
 다'. 왜 영희가 어제 도서관에서 철수를 만났나?

(18나, 나')에서 ‘영희가’를 주제로 볼 수 있는지 우선 살펴보자. 문장의 어떤 성분이 무표적인 어순보다 앞쪽으로 이동할 때 이러한 어순 변이를 주제화로 보는 견해¹⁸⁾도 있으므로 (18다)의 ‘영희가’는 주제로 볼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조각문은 생략을 통해 만들어지며 이 때 ‘영희가’가 생략되면 질문의 요지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17) 최윤지(2019), 『한국어 정보구조 연구』, 태학사.

18) 남미혜(1988), 「국어어순연구: 어순재배치 현상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신서인(2009), 「어순 변이와 문장 의미 해석」, 『한국어 의미학』 28. 등 참조.

- (19) 나. ?왜?
 다. ?왜 어제 도서관에서 철수를 만났나?
 르. ?왜 어제 도서관에서 철수를?

한국어에서 화제, 주제는 생략이 가능한 것, 초점은 생략할 수 없는 것으로 대부분의 논의가 일치된 견해를 보인다. ‘XP가’와 ‘왜’가 이루는 조각문에서 ‘XP가’는 생략하였을 때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의미가 달라지게 된다. 그런데 이는 ‘왜’를 생략하였을 때에도 같다. 의문사 의문문에서 의문사는 초점으로 여겨져 온 요소이다.¹⁹⁾

- (20) 나. ?영희가?
 다. ?영희가 어제 도서관에서 철수를 만났나?

조각문은 대부분의 문장 성분이 생략되고 일부의 성분만 남아 이루는 문장이므로 적격성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생략 전과 의미가 동일한지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했을 때 (19)와 (20)은 둘 다 (18나, 나’)과 동일한 의미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왜’와 ‘영희가’는 모두 더 이상 생략될 수 없는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다.

조각문에 ‘XP가’와 ‘왜’ 이외에 다른 성분이 추가로 잔존하는 경우를 보자.

19) 의문문의 초점 구조에 대해서 알아본 바 정보구조적 관점에서는 해석이 복잡한 편이나 주어지지 않은 정보인 의문사를 대체로 초점으로 본다. 의문사 관련 연구에서는 동형의 부정사를 비교하여 의문사를 구분하려는 논의에서 이와 같은 언급이 있다. 이은섭(2005), 『현대 국어 의문사의 문법과 의미』, 태학사, pp. 44-52 참조. 의문사를 초점으로 볼 때 의문사와 같이 신정보를 나타내는 초점을 ‘가로초점’, 본고에서 질문의 요지라고 명명한 성분을 ‘세로초점’이라 하여 구분하여 논의하기도 한다.

- (21) ㄱ. 영희가 왜 도서관에서?
 ㄱ'. 왜 영희가 도서관에서?
 ㄱ". 영희가 도서관에서 왜?
 ㄴ. 영희가 요즘 도서관에서 근무하거든.
 ㄷ. ?영희 말고는 다들 바빴기 때문이야.
- (22) ㄱ. 영희가 왜 도서관에서 철수를?
 ㄴ. ?영희가 요즘 도서관에서 근무하거든.
- (23) ㄱ. 영희가 왜 도서관에서 철수를 어제?
 ㄴ. ?영희가 요즘 도서관에서 근무하거든.

(21ㄱ)에 (21ㄴ)과 같이 ‘영희’와 ‘도서관’ 모두에 질문의 요지를 두고 대답하지 않고 ‘영희’에만 요지를 둔 (21ㄷ)과 같이 대답한다면 매우 어색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영희가’와 ‘도서관에서’의 어순이 바뀌더라도 동일하다. (22ㄱ)이나 (23ㄱ)과 같이 잔존 성분이 더 많은 경우에도 이들 중 일부에만 답한다면 어색한 답변이 된다.

주제 또는 화제는 조각문에서 잔존할 수 없는가? 이를 검토하기 위해 문장을 바꾸어 보면 다음과 같다.

- (24) ㄱ. 영희는 어제 도서관에서 철수를 만났다.
 ㄴ. ?그렇구나, 영희는.
 ㄴ'. ?그렇구나, 영희는 어제.
 ㄷ. 그렇구나, 어제 도서관에서.

(24ㄱ)에 대한 대답으로 ‘-은/는’ 조사구가 잔존한 (24ㄴ, ㄴ')은 매우 부자연스럽다. (24ㄷ)과 같이 다른 명사구가 잔존하는 경우에는 어색하지 않은 것과 대비된다. 이 때 ‘-은/는’이 대조의 의미로 다음과 같이 쓰이는 경우에는 어색함이 해소되는 것을 볼 수 있다.

- (25) 가. 민수와 영희가 어제 함께 도서관에 갔는데, 영희는 철수를 만났다.
나. 그렇구나, 영희는.

유사한 맥락으로 문장부사와 ‘-이/가’ 성분이 조각문을 이룰 수 없는 이유도 추정해 볼 수 있다.

- (26) 가. 다행히 영희가 어제 도서관에서 철수를 만났다.
나. ?그렇구나, 다행히 영희가.
다, 그렇구나, 영희가 어제.
르. 그렇구나, 다행히.

(26나) 문장이 어색한 것은 말뭉치를 통해서도 짐작이 가능하다. 『21세기 세종계획』²⁰⁾ 현대문어 형태분석 말뭉치 기준²¹⁾으로 문장부사와 ‘-이/가’ 명사구만으로 이루어진 조각문은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문장부사는 명제에 대한 화자의 감정이나 평가를 표현하는 부사이므로 정보 위계에서 초점에 가까운 위치를 갖기 어렵다. 또한 (26가)에 대해 (26다)과 같이 문장부사만으로 이루어진 조각문으로 대꾸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 때 다행스럽다고 여기는 주체는 (26가)과 (26다)이 각각 발원자 자신을 가리키므로 서로 다른 존재이다. 그러므로 (26다)에서 주는 정보는 앞서 들은 내용에 대해 ‘나도 다행스럽다고 여긴다’는 것이므로 선행 발화로 주어진 정보가 아니라 새로운 정보에 가깝다.

종합하여 보면 ‘XP가 왜’와 ‘왜 XP가’ 구성의 조각문에서 ‘왜’와 ‘XP가’는 모두 더 이상 생략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이처럼 잔존하는 요소는 초점이거나 혹은 초점이 될 수 있는 요소이며 이들이 초점으

20) 국립국어원(2020), 『21세기 세종계획』 2020.11 수정판.

21) 2020년 11월 3쇄 기준 15,226,186 어절 분량에서 검색하였다. 이하 ‘말뭉치’는 모두 『21세기 세종계획』 2020년 수정판의 자료를 소재로 한 것이다.

로 해석되는 것은 ‘-이/가’의 영향력 때문이 아니라 조각문 구성에서 생략의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가설은 두 가지로 세워 볼 수 있는데, 첫째로는 조각문에서 잔존하는 것은 어순 변이에 의한 것보다 강력한 정보적 위계를 부여하는 요인이라는 가설이고, 둘째로는 기저 문장에서 어순과 무관한 다른 요인으로 초점화된 성분이 생략으로부터 살아남아 이러한 조각문을 만든다는 가설이다. 첫 번째 가설대로라면 조각문 ‘XP가 왜’와 ‘왜 XP가’가 어순 차이에도 불구하고 조각문의 의미 차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 가능하다. 두 번째 가설대로라면 조각문의 생성 과정에 있어서 생략보다 초점 부여가 선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어순과 무관하게 문장의 특정 요소에 초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는 강세가 대표적일 것이다.

- (1) ㄴ. 왜 영희가?
 ㄴ'. 영희가 왜?
 (2) ㄴ. 왜 영희가 어제 도서관에서 철수를 만났나?
 ㄴ'. 영희가 왜 어제 도서관에서 철수를 만났나?

편의를 위해 (1)과 (2)의 예문을 다시 가져와 보았다. 위 가설대로라면 (2ㄴ, ㄴ')의 문장으로부터 (1ㄴ, ㄴ')과 같은 조각문이 생성되기 위해서는 생략이 일어나기 전 강세와 같은 운율적 표지로 초점 위계가 부여되는 선행 과정을 반드시 전제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때 (2)에서 강세는 ‘영희가’에 부여될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2)의 문장은 ‘영희가’에 초점이 부여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1)의 조각문과 의미가 동일하기 어렵다는 뜻도 된다.

운율적 초점 표지는 ‘-이/가’ 명사구 외에도 다양한 요소와 결합할 수 있다. 이를 제외한, 어순과 같이 문면에 드러나는 변수가 (2)에서 이미 작용하여 초점을 결정한다고 볼 수는 없는지 살펴보면 조각문을

토대로는 부정적인 결론에 이른다. 다만 의도적으로 특정 성분의 생략을 가정하거나 조각문을 만들어 보는 방식이 초점 검토에 유용하다는 점만 재확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4. 조각문을 통한 의문부사 ‘왜’ 검토

다음으로 의문부사 ‘왜’가 조각문 구성 안에서 보이는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앞서 (1)에서 다른 요소에 대해 질문하는 문답쌍을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 (27) ㄱ. 영희가 도서관에서 철수를 만났다.
 ㄴ. 영희가 언제?
 ㄴ'. 언제 영희가?
- (28) ㄱ. 영희가 어제 철수를 만났다.
 ㄴ. 영희가 어디에서?
 ㄴ'. 어디에서 영희가?
- (29) ㄱ. 영희가 어제 도서관에서 누군가와 만났다.
 ㄴ. 영희가 누구를?
 ㄴ'. 누구를 영희가?

『21세기 세종계획』 현대문어 원시말뭉치²²⁾ 기준으로, 말뭉치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으로는 (27~29ㄴ')과 같이 ‘XP가’가 의문사보다 후행하는 용례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언제’, ‘어디’, ‘어디에(서)’, ‘어디서’보다 ‘XP가’가 선행하는 조각문의 사례가 8건 등장한 것에 비하여 ‘XP가’가 후행하는 조각문의 사례는 전혀 등장하지 않았다. 그러나 ‘XP가’와 의문사로 이루어진 조각문의 용례부터 매우 적으므로 이

22) 3쇄 기준 36,879,143 어절 분량에서 검색하였다.

를 용인성의 판단 근거로 삼기는 어려워 보인다.

‘왜’ 조각문의 경우에도 실제 말뭉치에서 ‘왜 XP가’ 어순의 문장보다는 ‘XP가 왜’ 어순의 문장이 월등히 많이 등장한다. 위 현대문어 원시말뭉치에서 ‘XP가 왜’ 어순의 문장이 20회 내외 집계되는 동안 ‘왜 XP가’ 어순 문장의 등장 횟수는 1건 정도에 그쳤다. 의문사가 ‘XP가’보다 후행하는 조각문이 선행하는 조각문보다 다수 등장하는 까닭으로는, 문어라는 특성상 의문종결어미로 완결되지 않은 문장에 쓰인 의문사가 동형의 부정사가 아닌 의문사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의문사 바로 뒤에서 의문 문장부호 ‘?’로 억양을 암시하는 편이 한국인의 직관에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된다. 동일한 『21세기 세종계획』의 현대구어 말뭉치²³⁾를 대상으로 검색하였을 때에는 ‘XP가’와 의문사 사이의 선후행 관계가 문어 말뭉치에 비해 훨씬 비슷한 비율로 나타난다는 점이 추측에 신빙성을 더한다.²⁴⁾

정리하자면 ‘XP가’와 조각문을 이루는 빈도 및 어순 선호도에서 다른 의문사와 ‘왜’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반드시 피수식을 동반해야 하는 의문 관형사와 같이 품사적 특성 때문에 조각문 구성이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이은섭(2005)²⁵⁾에서 제시하는 의문사 목록의 다른 의문사로 조각문을 구성하여도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다음으로, (1)에서 ‘왜’를 다른 의문부사로 바꾸어 보면 아래와 같다.

(30) ㄱ. 영희가 어제 도서관에서 철수를 만났다.

ㄴ. 영희가 어째서? / 영희가 어찌하여?

23) 3쇄 기준 805,646 어절 분량에서 검색하였다.

24) 본고에서는 자료의 한계로 조각문과 말끝 흐림, 또는 말 끊김을 구별 가능한 다량의 구어 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으므로 구어 자료를 대상으로 조각문을 살피지 못했다. 후속 논의에서 이를 극복한다면 더 많은 조각문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5) 이은섭(2005), p. 71.

ㄴ'. 어째서 영희가? / 어찌하여 영희가?

(31) ㄱ. 영희가 어제 도서관에서 철수를 만났다.

ㄴ. 영희가 어떻게? / 영희가 어찌?

ㄴ'. 어떻게 영희가? / 어찌 영희가?

(30)은 의문부사 중 ‘원인, 이유’를 묻는 부사들로 의미가 비교적 단순하게 해석되는 것들이다. (1)의 ‘왜’와 같은 위치에 ‘어째서, 어찌하여’를 넣어 조각문을 만들어 보았을 때 수용에 무리가 없으며 ‘왜’ 조각문과 의미도 동일해 보인다.

(31)은 용인 가능하되 ‘어떻게’와 ‘어찌’의 의미가 제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떻게’와 ‘어찌’는 이은섭(2005)²⁶⁾에서 분포에 따라 의미가 다르게 해석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32) ㄱ. 어떻게(+감히/어떤 방법으로) 그가 일등을 차지했니?

ㄱ'. 그가 일등을 어떻게(²⁷⁾+감히/어떤 방법으로) 차지했니?

ㄴ. 어찌(어떤 이유에서/어떤 방법으로) 그가 일등을 차지했니?

ㄴ'. 그가 일등을 어찌(²⁷⁾어떤 이유에서/어떤 방법으로) 차지했니?²⁷⁾

‘어떻게’와 ‘어찌’는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거나 이유를 묻는 의미와, 방법이나 과정을 묻는 의미 두 가지로 해석된다. 이 때 (32')처럼 동사구 앞에 분포할 경우 모종의 제약을 받아 전자의 의미로 해석되기 어렵다. 이는 임흥빈·장소원(1995)²⁸⁾에서 문장부사와 동사구 부사가 각각 분포상 제약을 받는다고 본 것과 연관지을 수 있다. 즉 ‘어떻게’와

26) 이은섭(2005), pp. 167-171, 179-184.

27) 이은섭(2005), p. 179.

28) 임흥빈·장소원(1995), 『국어어문법론 I』,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pp. 295-296.

‘어찌’가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거나 이유를 묻는 경우 문두 위치가 자연스럽고 상대적으로 동사구 앞은 어색하며, 이와 달리 방법이나 과정을 묻는 경우 반대로 동사구 앞 위치가 자연스럽고 문두 위치는 수용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이제 다시 (31ㄴ, ㄴ')을 보면, 조각문의 경우에도 ‘어떻게’와 ‘어찌’의 의미가 제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질문에 답을 가정해 보면 차이가 더욱 분명해진다.

- (33) ㄴ. 영희가 어떻게? / 영희가 어찌?
 ㄷ. 영희가 요즘 자주 도서관에 가기 때문이야.
 ㄹ. '영희가 전공 도서를 찾다가 만났다고 하더라.

(31ㄴ, ㄴ') 질문에 대한 답으로 (33ㄷ)은 무리가 없으나 (33ㄹ)은 어색한 느낌이 든다. ‘XP가’와 의문사로 이루어진 조각문에서도 ‘어떻게’와 ‘어찌’가 분포상 제약을 받는 것이다. 이유를 묻는 경우에는 ‘XP가’와 함께 조각문을 이룰 수 있으나, 방법이나 과정을 묻는 의미인 경우에는 불가능하다.

위를 종합하여 보면 ‘XP가’와 함께 조각문을 이루는 의문부사가 다의성이 제한되고, 이유와 방법 두 가지 의미를 지니는 경우 조각문에서는 ‘왜’와 동일하게 이유를 묻는 의미로만 쓰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존 수식 범위에 따라 부사를 분류하는 기준을 적용할 때 문장부사와 같은 의미로만 쓰인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문장부사가 ‘XP가’와 함께 조각문을 이룰 수 있는가? 의문부사가 아닌 다른 문장부사로 평서형의 조각문을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은 모습을 보인다.

- (34) 가. ?응, 영희가 그리고.
 가'. ?응, 그리고 영희가.
 나. ?그래, 영희가 실은.
 나'. ?그래, 실은 영희가.
 다. ?아니, 영희가 다행히.
 다'. ?아니, 다행히 영희가.

(34)는 신서인(2014)²⁹⁾에서 한국어의 문장부사를 하위분류한 결과 중 접속부사, 명제부사, 발화행위부사의 예를 하나씩 넣어 본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자연스러운 문장이라 보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대화 중인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음성적으로 말끝을 흐리거나 도중에 끊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용할 수 없는 문장들이다. 실제로 『21세기 세종계획』 현대문어 말뭉치 기준으로 검색해도 ‘XP가 왜/어떻게/어째서’ 등의 사례가, 비록 문학 속 인물의 대화에 다소 한정되는 편이더라도, 상당히 많은 예가 등장하는 데 반하여 문장부사와 ‘XP가’가 결합한 예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는 문장부사 단독으로는 조각문을 이루는 사례가 등장하는 것을 볼 때 특징적이라 할 만하다.

- (35) 가. 그뿐이다. 그리고. 은혜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는다.
 나. 진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글썽,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35)의 예는 동일한 현대 문어 말뭉치에서 가져온 것이다. 필자의 직관으로는 접속부사가 단독으로 조각문을 이루는 예는 쉽사리 상상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말뭉치에서는 (35가)과 같이 사례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29) 신서인(2014), 「담화 구성 요소를 고려한 문장부사 하위분류」, 『한국어 의미학』 44.

이처럼 'XP가'와 함께 조각문을 이루는 의문부사는 의미가 제한되는 현상을 보이고 이러한 의미는 기존 논의에서 문장부사로서의 쓰임으로 해석되었으나, 의문부사가 아닌 문장부사가 'XP가'와 조각문을 이루면 오히려 수용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XP가'와의 조각문 구성이 문장부사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아니며, 오히려 의문부사 '왜'나 특정 의미를 표현하는 '어떻게'와 '어찌'를 문장부사로 볼 수 있는지 추가적인 고찰이 필요해 보인다.

부사를 수식 범위 기준으로 분류할 때 가장 보편적인 분류 방법이 성분 부사와 문장부사로 이분하는 것으로,³⁰⁾ 연구사에서도 이러한 분류 방식을 가장 많이 따르고 있다. 이를 둘보다 좀 더 세분한 논의로는 임홍빈·장소원(1995)³¹⁾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동사-부사, 동사구-부사, 문장-부사의 셋으로 분류하였다.³²⁾ 김경훈(1996)³³⁾에서는 부사어를 대상으로 한층 더 세분화하여 동사 수식 부사어, 동사-바 수식 부사어, 동사구 수식 부사어, 선어말어미구 수식 부사어, 어말어미구 수식 부사어로 나누었다.

이러한 접근법에 따라 문장부사를 판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논의되었다. 이환묵(1976)³⁴⁾에서는 문장부사의 특성으로 명령문이나 의문문에 쓰이지 못하는 점, 부정이나 의문의 초점이 되지 않는 점, 명제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나타내는 점 등을 들었

30) 김혜영(2019), 「현대 한국어 부사어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 50.

31) 임홍빈·장소원(1995), pp. 293-300.

32) 이러한 수식 범위는 문장의 서술어가 형용사인 경우에도 같게 적용되며, 임홍빈·장소원의 저서에서도 형용사-부사와 형용사구-부사를 구별하여 제시하였다(임홍빈·장소원(1995), pp. 299-300). 그러나 이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용어가 제시되지 않아 해당 분류 체계를 논할 때엔 동사-부사, 동사구-부사, 문장-부사로 부르기로 한다.

33) 김경훈(1996), 「현대국어 부사어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 48-59.

34) 이환묵(1976), 「문장부사 '다행히'에 대하여」, 『언어』 1-2, pp. 126-137.

다. 김경훈(1977)³⁵⁾에서는 문장부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다섯 가지로 제시한 바 있다.

문장 내 위치와 수식 범위로 문장부사를 판별하는 논의에 반성하는 김선효(2005)³⁶⁾와 같은 논의도 있다.

신서인(2011)³⁷⁾에서는 관련 논의를 분석하여 문장부사를 설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며 문장부사의 성격으로 무표적 어순이 문두 위치라는 점과 수식하는 문장의 명제 바깥에서만 기능한다는 점을 들었다.

- (36) 가. 선생님이 [[항상 술을 마시지] 않는다].
나. 선생님이 [항상 [술을 마시지 않는다]].
- (37) 가. 철수가 문을 [[확실히 잠그지] 않았다].
나. [확실히 [철수가 문을 잠그지 않았다]].
다. 철수가 문을 [확실히 [잠그지 않았다]].³⁸⁾

(36)과 (37)은 부정의 영역에 있어서 문장부사와 성분 부사의 차이를 보여 주는 것으로 선행 논의에서 제시된 예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36)에서 보듯이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는 부정의 영역 안팎으로 드나들 수 있다. 그러나 문장부사는 (37다)에서처럼 동사 바로 앞에 위치하더라도 부정의 영역 안에 들어올 수 없으며, 문장 내에서 어디에 위치하든 동일하게 문장부사로 기능함을 보였다.

이러한 논의를 따를 경우 이유, 원인을 나타내는 부사나 의문부사 ‘왜’는 문장부사 판별 기준을 만족시키는가? (36)의 예를 변형하여 다음과 같은 문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35) 김경훈(1977), 「국어의 부사수식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6) 김선효(2005), 「문장부사 설정에 대한 재고」, 『언어와 정보 사회』 6.

37) 신서인(2011), 「문장부사의 위치에 대한 고찰」, 『국어학』 61.

38) 신서인(2011). p. 217.

- (38) ㄱ. 선생님이 [[건강이 좋지 않아서] 술을 마시지 않는다].
 ㄱ'. *선생님이 [[건강이 좋지 않아서] 술을 마시지] 않는다.
 ㄴ. *선생님이 [[술을 좋아해서] 술을 마시지 않는다].
 ㄴ'. 선생님이 [[술을 좋아해서] 술을 마시지] 않는다.
- (39) ㄱ. 철수는 [[즐거워서 그림을 그리지] 않는다].
 ㄴ. 철수는 [즐거워서 [그림을 그리지 않는다]].
 ㄷ. 즐거워서 철수는 [그림을 그리지 않는다].

(38)의 예를 볼 때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절은 부정의 영역 안팎이 모두 가능하되 의미에 따라 영역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구별이 다소 애매한 (39)와 같은 예문을 가정해 보면,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나 부사어는 위의 기준을 적용할 때 문장부사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왜’에 적용시켜 보면 문장부사와 같이 부정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이는 다른 의문사들도 유사한 특징을 공유하는 것을 볼 수 있으므로 문장부사이기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40) *선생님이 [왜 술을 마시지] 않으십니까?
 (41) *[누가 오지] 않았니?
 (42) *[누가 창문을 열어라!

(40)의 예를 통해 ‘왜’가 문장부사라고 보는 것은 (41, 42)의 예가 있으므로 근거 부족이다. (41)과 (42)는 ‘누구’가 부정사가 아닌 의문사인 한 적격하지 못한 문장이 된다. 의문사의 이러한 성질로 인해 ‘왜’가 의문부사이자 문장부사인지를 판별하기 위하여 기존의 문장부사 판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렇다면 ‘왜’를 부사로서 분류하기 위해 적용 가능한 기준에 무엇이 있는지, 이에 관한 논의는 찾아보

기 어려웠다. ‘왜’를 문장부사로 간주하는 근거로써 다음 (43)과 같은 어순 변이 현상을 들기엔, 이는 김선효(2005)³⁹)에서도 이미 의심스러운 기준으로 지적했던 바가 있다.

- (43) 가. 왜 영희는 도서관에서 철수를 만났나?
나. 영희는 왜 도서관에서 철수를 만났나?
다. 영희는 도서관에서 왜 철수를 만났나?
르. 영희는 도서관에서 철수를 왜 만났나?
- (44) 가. 자나깨나 그는 칼만 던지고 있다.
나. 그는 자나깨나 칼만 던지고 있다.
다. 그는 칼만 자나깨나 던지고 있다.
라. 그는 칼만 던지고 있다, 자나깨나.
(김선효, 2005:45, 밑줄 표시는 필자)
- (45) 가. 어제 영희는 도서관에서 철수를 만났다.
나. 영희는 어제 도서관에서 철수를 만났다.
다. 영희는 도서관에서 어제 철수를 만났다.
르. 영희는 도서관에서 철수를 어제 만났다.
- (46) 가. 어디서 영희가 어제 철수를 만났나?
나. 영희가 어디서 어제 철수를 만났나?
다. 영희가 어제 어디서 철수를 만났나?
르. 영희가 어제 철수를 어디서 만났나?

(44)에서 보듯이 ‘~나~나’ 형태의 부사들이 문장 내에서 위치 이동이 자유로우므로 문장 내 이동 가능성이 문장부사 판별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⁴⁰⁾ 이는 의미로 분류하였을 때 시간 부사와 장소 부사에 해당하는 (45)와 (46)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사건의 주체, 객체, 시간과 장소, 원인, 방법 등 사건이나 명제를 이루는 요소

39) 김선효(2005), p. 45.

40) 김선효(2005), p. 45.

가 존재하고, 이들이 문장 안에서 필수적인 논항이 아닌 자리에 의문 대명사나 명사구로 실현된 경우 이를 한국어에서 부사어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닌지 추정된다. 이러한 고찰은 사실 부사 및 부사어를 대상으로 분류한 논의에서 적잖이 있어 왔으며, 최근 김혜영(2019)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당해 논의에서는 이유, 결과, 목적, 양보, 조건 등을 나타내는 부사어를 ‘논리적 관계 부사어’로 구분하였으며,⁴¹⁾ 하위 사건과 관련을 맺는 성분 부사어들과 달리 시간 부사어나 논리적 관계 부사어는 사건 전체와 관련을 맺는 부사어 부류로 문장 내에서 위치 이동이 비교적 자유롭다는 특성을 공유한다고 지적하였다.⁴²⁾ 이와 같은 분류를 적용해 본다면 이유나 원인과 관련되는 의문부사 ‘왜’는 ‘왜’가 문장 안에서 보인 특징만으로 문장부사 범주에 포함시키기가 더욱 조심스럽다.

지금까지 조각문에 쓰인 ‘왜’의 특징을 다른 의문사 및 문장부사와 비교하여 살피고, 문장부사의 판별 기준과 이를 ‘왜’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 논의하였다. 조각문을 통해서만 검토할 경우, 문장부사는 ‘XP가’와 조각문을 이루기 어려우므로 반대로 ‘XP가’와 조각문을 이루는 ‘왜’는 문장부사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문장부사 판별 기준을 적용해 보았을 때에도 일부 기준에서 의문사는 잘 적용되지 않거나 문장부사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나타난다.

본고의 논의만으로 ‘왜’의 부사 범주 내 유형을 결정하기는 선부른 감이 있다. ‘왜’의 범주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다양한 문형을 바탕으로 하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조각문 구성이 부사 범주 판별 기준으로 적용될 수도 있음을 확인한 데에서 작으나마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41) 김혜영(2019), pp. 121-127.

42) 김혜영(2019), pp. 175-177.

5. 결론

조각문 현상은 생략과 자유 어순의 상호작용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⁴³⁾ 본고에서는 ‘XP가 왜?’, ‘왜 XP가?’ 조각문을 분석하여 의문부사 ‘왜’와 초점 및 ‘-이/가’ 조사구에 관련된 논의들을 살피고, 조각문이라는 언어 현상이 다른 언어 현상이나 특성을 해석, 비교하는 데에 실마리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조각문 ‘XP가 왜’와 ‘왜 XP가’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다중 생략에 의한 것임을 밝히고, 이들이 동일한 문장으로부터 어순 변화를 통해 만들어진 문장이 아니라 서로 다른 문장으로부터 생략을 겪어 만들어진 것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왜’가 기존 논의에서 다루어 온 바와 같이 문장부사가 맞는지 검토하였으며, ‘-이/가’ 명사구가 어순에 관계 없이 초점이 될 수 있음을 알아보았다. 문법 이론 연구는 소위 흠결이 없는 온전한 문장을 가정하여 논의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생략 현상과 조각문을 통해 드러나는 부분이 존재한다.

본고에서는 ‘왜’와 문장부사의 차이점, ‘-이/가’ 조사구와 초점, 생략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조각문을 통해 흥미로운 점들을 살펴보았으나 한정된 범위 안에서 뚜렷한 결론에는 이르지 못하고 질문을 제시하는 데에 그쳤다는 한계가 있다. 후속 논의에서는 조각문을 포함하여 다양한 문형의 문장들을 토대로 풍부하고 발전된 논의가 있으리라 기대하며 글을 맺는다.

43) 이정훈(2018), p. 106.

참고문헌

【자 료】

국립국어원(2020), 『21세기 세종계획』 2020.11 수정판.

【논 저】

- 김경훈(1996), 「현대국어 부사어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_____(1977), 「국어의 부사수식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선효(2005), 「문장부사 설정에 대한 재고」, 『언어와 정보 사회』 6.
 김혜영(2019), 「현대 한국어 부사어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남미혜(1988), 「국어어순연구: 어순재배치 현상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정수(2005), 『한국어의 부사』, 서울대학교 출판부.
 성광수(1972), 「국어 소형문에 대한 검토」, 『한글』 150.
 신서인(2014), 「담화 구성 요소를 고려한 문장부사 하위분류」, 『한국어 의미학』 44.
 _____(2011), 「문장부사의 위치에 대한 고찰」, 『국어학』 61.
 _____(2009), 「어순 변이와 문장 의미 해석」, 『한국어 의미학』 28.
 안희돈(2012), 『조각문 연구』, 한국문화사.
 윤평현(2003), 「국어 소형문의 발화 행위에 대한 고찰」, 『한글』 259.
 이유미·황병순(2017), 「국어 소형문의 특성과 유형」, 『언어과학연구』 80.
 이은섭(2005), 『현대 국어 의문사의 문법과 의미』, 태학사.
 이정훈(2018), 「조각문의 형성 방식과 다중 조각문」, 『국어학』 85.
 _____(2017), 「한국어 조각문의 형성 과정: (이동과) 생략」, 『언어와 정보 사회』 31.
 이환목(1976), 「문장부사 ‘다행히’에 대하여」, 『언어』 1-2.
 임홍빈·장소원(1995), 『국어문법론 I』,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_____(2009), 「‘이/가’ 주제설에 대하여」, 『담화와 인지』 16(3).
 조세연·이한규(2017), 「“왜-XP?” 구문의 특성: 직접 해석 접근법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55.

402 인문논총 제78권 제4호 (2021.11.30.)

최윤지(2019), 『한국어 정보구조 연구』, 태학사.

원고 접수일: 2021년 10월 12일

심사 완료일: 2021년 10월 26일

게재 확정일: 2021년 11월 3일

ABSTRACT

A Study on the “XP가 왜” and “왜 XP가” in Korean

Kwon, Seon-young*

This paper aims to analyze ‘fragmental utterance’ such as “XP가 왜?” and “왜 XP가?”, and reviews the discussions on the question adverbs ‘왜’ and the subject marker ‘-이/가’. By comparing them through the fragmental utterance, it is possible to present doubts about whether ‘왜’ is a sentence adverb. It is also confirmed that the noun phrase with ‘-이/가’ can become the focus, regardless of word order. Multiple fragmentary sentences such as “XP가 왜?” and “왜 XP가?” are created by ‘multiple ellipsis’ from different sentences, not by ‘move-and-delete’ from the same sentence. It is significant that the fragmental utterance is useful for grammatical analysis.

* Ph.D. Candidat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